

배포 일시 2025. 5. 22. (목)

담당자

즉시 보도 가능

진우성 사무국장 010-2017-0584

기자회견 대학생본부, 충청권 릴레이스피커 프로젝트 진행

- 권역별 순회 기자회견 프로젝트, 릴레이스피커 충청편 진행
- R&D 예산 삭감 비판하고 R&D 분야 적극 육성 외쳐
-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교육 살리기도 강조해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학생본부(본부장 봉건우)는 5월 22일(목) 15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선대위 대학생본부(본부장 오원택), 충북도당 선대위 대학생본부(본부장 김지현)가 공동주최했다.

각 단위 대학생본부는 중앙선대위 대학생본부의 권역별 순회 기자회견 프로젝트, 「릴레이스피커」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회견에서 ‘R&D 분야 적극 육성 촉구’,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교육 살리기’를 주제로 설정했다.

봉건우 중앙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충청권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KAIST가 자리한 곳”이라고 밝히며 “충청은 대한민국 과학수도이자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우리나라 미래”라고 강조했다.

오원택 대전시당 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그런데 윤석열정권 R&D 예산 삭감 조치로 연구 현장 곳곳에는 불안과 좌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며 “대전 혁신생태계가 위협받았고,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 우려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원택 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나라, 청년 연구자와 과학기술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충청도당 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윤석열정권은 임기 내내 학교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주먹구구식 교육 정책은 학부모, 교사, 학생 그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지현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학교 교육 구조를 구축하고, 무분별하고 정량적인 교원 감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나라에 아이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학교 교육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건우 중앙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1020세대 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충청권에 거주하며 이공계 종사를 희망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이 희망과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붙임 현장사진 3장. 끝.

붙임 기자회견 현장 사진

